

세상에 온통 꽃 천지, 아름다운 평화 계속 됐으면...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뭘, 그냥 꽃이 무더기로 있겠지. 차도 막히고 사람도 많다는데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하는 건가?"

꽃은 본능적 감수성을 제대로 자극하는 생물이다. 어차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예의는 인간의 본성이다. 화사하게 예쁜 꽃을 보며, 웃음 짓고 행복해 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많고 차도 막혔지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꽃에 내려앉는 나비처럼 '2009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찾은 것도 이 같은 아름다움의 끌림 때문일 것이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을 승언리 꽃지 행사장과 수목원에서는 '2009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가 열렸다. 이미 개장 전부터 전 국민적 관심이 이곳으로 쏠렸다. 아름다운 꽃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뿐만이 아니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절망과 시름에 잠겼던 태안군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검은 절망의 기름띠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알록달록 예쁜 꽃을 피워냈다는 사실이 묘한 감동을 주었다. 때문에 국민의 애정 어린 시선은 더욱 강했다.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행사장에서 이런 글귀를 만났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이룬 태안의 기적, 그곳에 사랑과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올해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가득 채운 꽃은 바로 '사랑과 희망의 꽃'이었다.

차량 정체 지루함 한 번에 사악~

박람회가 열리는 내내 언론은 안면도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와 차량정체에 관한 소식을 쏟아내고 있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에 혹여 꽃이 일찍 시들기라도 할까 우려한 관람객이 행사기간

앞부분에 몰려드는 모양이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선 덕인지 안면도 초입까지는 차량 정체와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행사장을 코앞에 두고 차는 거북이 걸음이다. 오전 10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많은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빨간색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태안에 검은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함께 박람회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어렵게 주차장에 차를 대기는 했지만 행사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무리로 긴 행렬을 이루며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굳이 안내 표지판도 필요 없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행렬에 합류했다. 족히 10분은 넘게 걸은 것 같다. 대형 관광버스와 장애인차량 셔틀버스 등은 행사장 코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들뜬 표정의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우라는 푸른 하늘을 더욱 파랗게 만들며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대형 전시관은 '꽃의 미래관'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전시관이라 그런지, 줄은 명절 귀성열차 예매 때만큼이나 길었다. 그 끝에 서서 전시관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그랬다가는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생겼다. 분산이 필요했다. 전시관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바다정원과 솜대 정원, 일출정원 등 야외정원에 펼쳐 놓은 꽃을 먼저 만났다.



tulip의 매혹에 완전 중독

꽃집 앞을 지날 때 화사하게 핀 꽃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꽃 박람회에서 발걸음 옮겨 닫는 것이 무척 힘들 것 같았다. 향기까지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은 무척이나 강렬했다.

그 자극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모양이다. 꽃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며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에는 남녀노소가 없었다. 아이 때의 웃음을 용케 끄집어 올리고 있었다. 회오리 모양으로 꾸며 놓



은 일출정원의 꽃이 만들어내는 색은 무척 아름다워 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세상은 흑백이 아닌 칼라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었던 현장은 '튤립원'이었다. 네덜란드가 떠오르는 '튤립'을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다. 사진에 너무 익숙한 탓인지 거대한 컬러 인 화지에 잘 뽑아 놓은 튤립사진을 보고 있는 듯 착각도 일었다. 내가 정말 마주하고 있는 풍경인지 의심스러웠던 게다. 갤러리에서 거대한 작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세상이 아닌 저편에 따로 존재하는 세상. 일종의 경외감이었다. 한참을 보고 있으니 바닷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꽃대를 흔 들었다. 입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정말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손을 대기도 어려운 아름다움이었다.

심포니관에서 만난 꽃, 바다 그리고 꿈



아름다운 꽃의 유혹에 사로잡혀 땃별 아래, 정수리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야외 정원을 쏘 다녔다. 장미원과 신기한 작품이 빼곡한 분재 원을 지나 예쁜 바람개비가 돌고 있는 바닷길 정원까지. 체력만 된다면 몇 바퀴라도 돌 수 있을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내음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안면도 꽃 박람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이었다.

싱글벙글 야외 정원을 쏘다니며 세상에 있는 꽃을 구경하다가 다시 전시관 앞으로 돌아왔지만 줄은 여전했다. 쉽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줄이 짧았던 꽃문화체험관과 꽃 음식관을 돌아 나와 심포니관 앞에 섰다. 줄이 제법 길었다. 그래도 줄 빠짐이 좋아 금세 줄어들고 있었다.

심포니관은 2009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의 주제관이기도 했다. '꽃, 바다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를 살려낸 심포니관에서 처음 만난 것은 백만 송이 꽃 터널이다. 태안 앞바다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눈 자원봉사자들을 기리고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감동적이었다.

자연 속에 꽃과 우리의 전통 초가집 장독대에 핀 꽃, 세상에서 제일 작은 꽃, 400년 된 회양목, 아이스크림 튤립 등 익숙해서 아련하거나 혹은 진귀한 것으로 가득했다.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얹히며 감동은 배가 되었다. 꽃과 음악이 이리도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질지는 또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의 흔들림이 극에 달했던 곳은 '희망의 대합창실'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꽃과 나비가 날아오르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린다. 아름다운 영상과 음향이 몇 번을 반복하는 동안,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 청량감과 평화로움이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이 새록새록 돈었다.

수목원은 특별 보너스

별이 모두 사라지기 전, 부행사장이 펼쳐져 있는 '수목원'을 빠뜨릴 수는 없었다. 계단을 올라 작은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니 거기도 줄이다. 그래도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자주 있어 지루하지 않았다. 5분쯤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바깥 풍경을 구경하다 안면도 수목원에 도착했다.

꽃박람회를 위해 만든 수목원이 아닌, 본래 자리를 잡고 있던 수목원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가꾸어 놓은 모습이 들뜬보다는 편안한 휴식을 주었다. 관람객도 주행사장보다 적었다. 야트막한 산비탈을 천천히 걸어 오르며 박람회장에서 일었던 흥분을 가라앉혔다.

우리 들판에 지천으로 피었을 야생화원에서 아기자기하게 핀 들꽃을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소박해진다. 생태습지원을 지나 곳곳에 자리 잡은 꽃, 나무 등과 눈인사를 나눈다. 수줍은 듯 자라는 조팝나무원을 에둘러 수목원 중간쯤에 있는 한국 정원에 들렀다. 친숙한, 야트막한 돌담 안으로 보이는 우리 정원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사람과 하늘, 집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텃마루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늘 푸른 안면도 소나무 빛이 하늘과 경계를 이루는 즈음에 시선을 두니 마음이 크게 열린다. 꽃 박람회 관람을 위해 방문해 수목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수목원을 따로 방문해 차근 차근 빠짐없이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셔틀버스를 타고 주행사장으로 돌아왔다. 이벤트 광장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밴드의 공연과 미술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별 홍보 마당이 펼쳐지고 있었다.

똑같은 길을 걸어 나오는 길, 들어갈 때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음 주 내 책상위에는 예쁜 꽃이 꽃혀 있는 작은 화병 한 개가 놓여 있을 것 같다.

국제 꽃 박람회 통해 관광 태안 이미지 굳혀

총 27일간 열린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충청남도과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주최했다. 꽃, 바다,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박람회장 규모만 793,390㎡에 달한다. 국내·외 113개 지자체 및 업체가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전시와 이벤트, 교역, 학술, 체험 행사 등 꽃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학술 행사가 펼쳐졌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주최 측의 예상을 상회해 입장객만 200여만 명에 달했다. 그에 따른 경제효과도 2,500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는 관광 태안의 새로운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며 충청남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열과 사랑이 넘치는 **충남여름 축제**

제7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백제 무왕으로 알려진 서동의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고도 부여.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배경으로 한 축제가 열린다. 제7회 부여 서동연꽃 축제다. 서동과 그의 연인 선화 공주의 나이트 퍼레이드와 사랑의 음악회, 서동요콘서트, 사랑의 가야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서동·선화공주 포룡정 재화(연극), 사랑의 DJ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공남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연꽃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 시 : 2009년 7월 10일~19일
장 소 : 서동공원 일원
문 의 :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828

2009금강민속축제



태양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7월 말, 물과 산의 고장 금산에서 '2009 금강민속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금산의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여름 축제다. 풍광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이 객으로 지켜보는 축제가 아닌 문화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당으로 꾸며지는 이번 축제는 한 여름 밤 가족, 혹은 연인, 친구에게 좋은 추억

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풀페기농요축제와 농바우끄시기 축제로 크게 나뉜다. 각 축제마당에서 열두 발 상모돌리기 대회와 강물과 하나되는 북소리, 강변음악회, 강변영화제, 돌독장사선발대회, 여울따라 흐르는 선율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일 시 : 2009년 7월 25일~26일
장 소 :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문 의 : 금산문화원 041-754-2724

보령 머드 축제



바다의 도시 보령시에서는 7~8월 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축제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가 오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대천해수욕장과 시내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보령머드축제 슬로건은 '머드에 흠뻑 빠져라! 뒹굴어라! 그리고 즐겨라!'다.

축제기간 다양한 축하공연과 머드어드벤처폭포와 머드레인터널, 머드정상정복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축제 기간 매일 야간 행사로 흥겨운 가요제와 뮤지컬 등 무대공연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축제기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해안선 길이만 136km에 달하며 이 해안에 산재해 있는 진흙을 이용하여 이미 머드팩이 상품화되어 있다.

일 시 : 2009년 7월 11일~19일
장 소 : 대천해수욕장과 시내 일원
문 의 : 041-930-3757

공주 고마나루축제



고마나루축제는 매년 7~8월에 금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가운데 열리는 문화행사다. 고마나루는 곰나루로, 곰과 인간의 애뜻한 사랑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테마로 하는 공연예술 축제가 고마나루축제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매년 국악과 연극, 관현악,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이어지는 여름밤 축제다.

올해도 역시 7~8월 사이에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금강변에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기며 여름밤을 보내는 것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한 방법이다.

일 시 : 2009년 7월~8월
장 소 : 공주시 고마나루
문 의 : 041-840-2841